

하늘의 별이 된 봉사자, 세 생명 살리고 떠나다

50대 여성 김미란씨, 뇌사 장기 기증으로 간·신장 나눈 남편 “내 인생의 스승, 사랑해... 하늘에서도 지켜봐 줘”

제주에서 봉사하는 삶을 살던 50대 여성이 장기기증으로 3명에게 새 삶을 선물하고 하늘의 별이 됐다.

4일 한국장기조직기증원에 따르면 지난 7월 21일 제주대학교병원에서 김미란(52)씨가 뇌사 장기기증으로 간과 양측 신장을 기증했다. 김씨는 7월 8일 지인과 식사를 마치고 대화하던 중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끝내 숨졌다.

김씨의 가족들은 “너무나 착하게 살아왔기에 삶의 마지막 순간에도 다른 생명을 살리는 좋은 일을 하고 가길 원했고, 기증을 통해 몸의

일부라도 누군가의 몸속에 살아 쉬면 좋겠다”고 밝혔다.

김씨는 서귀포시에서 2남 1녀 중 장녀로 태어났으며, 모든 일에 긍정적이고 순수한 사람으로 주변 사람들을 다 챙기는 자상한 사람이었다.

고등학교 졸업 후 농협에서 근무했고, 결혼 후 1남 1녀의 자녀를 키우다 최근에는 남편과 함께 식당을 운영했다. 책 읽기와 집 근처 산책을 즐겼고, 독실한 크리스천으로 주말이면 장애인 복지센터에 방문하여 나눔과 봉사를 이어왔다.

김씨의 남편 이동엽씨는 “여보, 내 인생의 스승이었고, 결혼하고



뇌사 후 장기를 기증, 3명에게 새 삶을 선물하고 하늘로 떠난 김미란씨.

힘든 시간 함께 보내며 나를 사람으로 만들어줘서 고맙워. 아이들과 행복하게 잘 지낼게. 하늘에서 우리 아이들 잘 지켜봐 줘. 고맙다는

말로는 부족하지만 하늘에서 행복하게 잘 지내고, 사랑해”라고 인사를 전했다.

양유리기자 glassy38@ihalla.com

제주지역 코로나19 재유행 조짐

8월 24~30일 코로나19 바이러스 검출률 65% 육박

지난 달 초 유행 조짐을 보이다 잠시 주춤했던 코로나19 감염자가 다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4일 제주특별자치도 보건환경연구원 이 발표한 2025년도 인플루엔자 및 호흡기바이러스 감염증 병원체 감시 결과에 따르면 도내 4개 협력병원에 내원한 호흡기감염증 의심환자 가검물을 채취해 검사한 결과 35주차(8월 24~30일) 코로나19 바이러스 검출률은 모두 15명으로 검출률은 65%에 이르고 있다. 32주차 검출률이 50%로 높아진

후 33~34주차는 20~30%대로 떨어졌다가 다시 급증세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질병관리청도 최근 코로나19 확산세와 예년 여름철 코로나19 유행이 8월에 정점을 보인 점을 고려할 때 향후 1~2주간 유행이 계속될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제주지역 코로나19 양성자 중 64%가 50세 이상 고령층이어서 사람이 많고 밀폐된 실내에서 열리는 행사 참여 등을 자제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위영석기자



해상서 양망 작업하던 선박 뒤집혀... 5명 구조

제주 비양도 해상에서 선박이 뒤집히는 사고가 발생했으나 선원원 전원은 무사히 구조됐다.

4일 제주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27분쯤 제주선적 어선 A호(9.77t, 연안선망, 승선원 5명)가 비양도 남서쪽 3.1km 해상에서 전복됐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해경은 구조대와 500t급 경비함정 등 3척을 급파했다.

A호의 선원은 모두 인근 어선 B호에 의해 구조된 것으로 전해졌다. A호 선장은 “양망 중 그물이 수중바닥의 미상의 물체에 걸려서 선박바닥의 미상의 물체에 걸려서 전복됐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해경은 선체 예인을 위해 영커 있는 그물을 제거하는 한편, 자세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양유리기자 glassy38@ihalla.com

불법 촬영·유포 협박 전직 소방관 징역 3년 구형

검찰이 평소 알고 지내던 여성을 불법 촬영하고 해당 영상물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소방관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제주지법 형사2부(재판장 임재남 부장판사)는 4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직 소방관(40대) A씨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8월 피해자 B씨와 식사 중 신체 일부를 몰래 촬영했다. 또한 같은 해 10월 피해자와의 성관계 장면을 불법 촬영하고, 올해 3월까지 30여 회 걸쳐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피해자를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날 검찰은 “피고인은 성관계 동영상 등 불법 촬영물을 유포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했다”며 “또한 수사 과정에서 신원을 알 수 없는 여성의 불법 촬영물이 다수 발견됐다”고 강조, 재판부에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A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25일 예정됐다.

백금탁기자

징계자가 승진 후보... 제주소방 인사관리 ‘부실’

4일 제주도감사위원회 제주 소방 종합감사 결과 발표

음주운전 징계 소방관 승진 제한 기간 중 승진 대상에

서귀포소방서와 소방안전본부가 음주운전으로 승진제한이던 소방관을 승진대상자로 포함했던 사실이 감사를 통해 드러났다.

제주도감사위원회는 4일 ‘2025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소방안전본부 및 제주·서귀포·서부·동부 소방서 종합감사 결과’를 공개하며 소방안전본부 18건, 제주·서부·동부 소방서 각 13건, 서귀포소방서 12건의 행정상 조치와 총 14명에 대한 신분상 조치(경고 7, 주의 7), 그리고 259만원을 회수 또는 추가 지급하도록 처분요구했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서귀포소방서는 2022년 7월에 상반기 승진대상자명부를 작성하면서 음주운전으로 징계 2개월 징계를 받은 소방관 A씨를 대상자에 포함시켰다. A씨는 승진임용 제한 기간(2020년 7월 22일~2022년 9월 21일) 임에도 승진후보에 들어간 것이다.

소방안전본부는 이러한 사실을 모른 채 대상자 통합명부에 A씨를 포함시키고 승진심사 업무를 처리했다.

A씨는 통합명부에는 들어갔지만 순위가 낮아 승진심사대상자 명단

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또한 징계처분 대상자의 승급제한기간을 잘못 반영해 보수를 과다·과소 지급하는 일도 발생했다.

2021년 견책 처분을 받은 B씨와 C씨는 6개월의 승급제한기간을 반영해 승급월도 6개월 늦춰져야 하는데도 소방안전본부는 이를 반영하지 않은 채 징계처분 이전 정기승급일이 되자 승급처리를 한 호봉을 산정하는 등 징계처분 대상자 4명에 대해 잘못된 보수를 지급했다. 이 결과, 155만5380원 과다 지급, 103만4930원이 과소 지급됐다.

감사위원회는 이에 대해 인사관리의 공정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며 시정 및 주의를 요구했다.

오소방기자 sobom@ihalla.com

신호등 들이받고 인도 위 차량 전도... 2명 경상

제주시내에서 한 차량이 신호등을 들이받고 인도 위로 전도돼 2명이 다쳤다.

4일 제주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 37분쯤 제주시 노형동 제주제일고등학교 사거리 인근

인도에서 한 차량이 뒤집혔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행인에 의해 구조된 운전자 A(22)씨와 동승자 B(18·여)씨는 경상을 입어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다.

양유리기자

국민건강보험, 보청기 보조금 확대 실시

- 와이덱스보청기 기준금액 131만원 중, 90% 지원(1,179,000원 환급)으로 보청기 제품비용(초기 적합관리비용 포함) 최대 99만 9천원과 후기 적합관리 비용 18만원을 구분하여 지급.
- 단,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100% 지원(111만원+20만원)
- 구입일로부터 5년마다 1회, 와이덱스 보청기 구입비 지원
- 15세 이하 아동의 경우, 양측에 와이덱스보청기 구입비 지원

***대상자**

-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한 사람 중, 사군·구에 등록된 청각장애인
- 청각장애 등록증(복지카드) 소지자(중증·경증)

***와이덱스보청기 구입비 예시**

보청기 가격	차상위계층	일 반
정책특가형, 와이덱스보청기 정가 190만원	본인부담금 0원 (전액 100% 건강보험공단 지원)	본인부담금 111,000원 보청기 제품비용 111,000원 후기 적합관리비용 20,000원 (나머지 90%는 건강보험공단 지원)

※ 정책특가형 제품은 위의 표에 설명된 것에 한함.

자세한 사항은 와이덱스보청기 제주센터로 문의하세요.

보청기 구입 요령, 이것만 알면 후회 없다!

보청기, 소음 환경에서도 잘 들리나?

보청기를 사용하며 불편하고 어려웠던 문제는 보청기를 착용한 상태에서 여러 사람과의 대화가 어렵다는 것과 소음 상황에서 대화가 힘들다는 것이다.

조용한 곳에서는 잘 들리지만 주변이 시끄러워지면 대화가 힘들다는 것이 많은 보청기 사용자들의 문제였다. 이런 사람들을 위해 와이덱스 보청기는 주변 환경에 맞춰 스스로 소리를 변화시키는 환경 적응형 프로세서를 중저가의 보급형 보청기부터 탑재하여 환경

말소리를 더 똑똑하게 들을 수 없을까?

대부분의 노인성 난청인들이 겪는 불편은 소리에 대한 분별력이 떨어지는 문제로 말소리에 대한 분별력이 없다는 것이다. 노인성 난청은 주로 고음의 소리를 감지하는 청각세포의 손상으로 발생한다. 말소리 분별의 어려움을 겪는 난청인은 본인 스스로가 난청인 사실을 인정하기 힘들어 하며 보청기를 사용하지 않으려고 한다.

보청기는 어떻게 구입해야 하나?

난청을 느끼고 보청기를 구입 하

기까지 걸리는 시간은 4년 미만

전체 46% 정도 되고, 나머지는 54%는 5~10년이 지난 후에야 보청기를 착용하게 되는데, 이렇게 오랜 시간 난청을 방치 후 보청기를 착용하는 경우 보청기를 착용하고도 말소리의 분별력이 좋지 않은 현상이 발생하곤 한다.

이는 뇌에서 어음을 이해하는 부분의 기능저하가 일어나기 때문이다. 따라서 난청을 느끼면 보청기 착용 시점을 가능한 앞당겨야 어음분별력이 더 이상 퇴화되지 않게 된다. 또한 잘 들지 못하는 상태가 장기화되면 본인의 발음 또한 분명하지 않게 된다.

난청이 의심되면 방치하지 말고 가능한 빨리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와이덱스 보청기

이 제품은 '영리기자'가 사용자의 주의를 환기 시키고 '사용방법'을 잘 읽고 사용하십시오. 한국의료기기 산업협회 광고사원심의 심의번호 2020-GN180079

와이덱스 보청기

제주시 동광로 4, 삼옥빌딩 3층 (제주시청 광양사거리 위치)

제주청능재활센터

이명전문케어센터

상담예약 064)755.1005

원장 강동우
청각학박사 수료
산학협력 교수
전문 청능사
언어 재활사